대학생의 보충학습이 미래전망감에 미치는 영향

최 지 운*

목 차

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표집)
2. 연구설계(자료수집)
3. 측정도구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맺음말

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대학 재학생 가운데 상당한 수가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전과를 희망하거나 또는 현재의 전공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 선택을 비롯하여 전공학과의 성적 결손과 낮은 점수의 취득 등을 중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게 되고 부정적인 전망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미래전망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전공학과목의 결손을 보충해 주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이나 미래 전망감(future perspectives)의 형성에 의의있게 영

* 人文大 敎授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출발점을 삼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면 이 연구는 청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기(critical period)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은 물론, 공헌도도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지적한 가정을 입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재학 중 전공교과의 보충학습이 그들의 미래전망감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이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위의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재학 중 야기된 학과목 성적의 실패나 결손이 그들의 미래전망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이 가정이 옳다면 그들의 학과목의 결손을 조기에 보충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미래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 일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대학생들의 재학중에 일어난 학습결손이나 실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학습의 보충이 과연 어느 정도 그들의 미래전망감(혹은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위에 든 가정이나 가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할만한 연구 혹은 개연성(蓋然性)을 드러내줄만한 연구는 비교적 많다. 그러한 연구들 중 몇가지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Bloom(1976)은 그와 그의 제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행학습에서의 인지적 투입특성(Cognitive Entry Characteristics), 정의적 특성 등이 학습의 성과 즉, 인지적 성과, 비인지적학습성과, 그리고 학습속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인지적 학습성과는 곧 학습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자아관, 기치관 등의 정의적 행동 특성에 관한 성과를 의미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 학업성과는 정의적 행동 특성의 하나인 자아정체성이나 미래 전망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된다.

둘째로, 학업에서의 성공적 경험은 학생들의 정의적 행동 특성인 자아개념이나 자아기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반대로 학업의 실패경험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린 김정숙(1972, 197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학업성취가 자아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연구(1972)와 학교성적의 누적적 경험이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1977)에서 모두 학업성취의 성공실패 경험이 자아개념, 자아기대, 미래전망 등의 정의적 특성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학업실패는 학생 스스로 학업에 대한 부적합의 지각으로, 부적합의 지작은 흥미상실로, 흥미상실은 실패기대로, 실패기대는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 실패의 누적은 학생자신의 진로의 전망 혹은 미래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학업성적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패경험을 성공경험으로 바꾸어 주거나 누적시켰을 때 그들의 미래전망이나 자아기대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만하다.

셋째, 박철희(1993)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받은 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와 미래전망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매우 의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학원에서 받은 보충학습이 그들의 재학성적에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한 학생과,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반응한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전자의 학생들이 그들의 진로와 미래관에 의의있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 연구는 위의 김정숙의 연구와 같이 학원의 보충학습→학업성공(실패의 치유) →긍정적 미래관(진로)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넷째, Erikson(1959,1968)은 자아(Self)를 통제해 나가는 힘의 원천으로서 자아정체성(Self Identity)의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정체성은 청년기 특히 대학재학기에 확립되는 것으로서 대학생활에 있어서 성공, 실패의 경험 혹은 긍정, 부정의 지각이 바로 정체성의 형성에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서봉연(1975), 최지운(1984) 등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바로 정체성 형성이나 긍정적

인 정의적 특성의 형성에 있어서 대학을 둘러싼 주변환경 영향과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을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각을 비롯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지각 등이 자아정체감과 정의적 특성의 형성에 영향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개연성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대학생들에게 적기에 보충학습을 제공하여 학습결손을 메꾸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학업에 자신감을 심어줌은 물론 그 자신감은 바로 그들의 진로와 미래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정의 도출:

대학재학 중 받은 보충학습이 그 자신의 학습결손을 보충해 줄 수 있거나 학업성적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미래전망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영향)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표집)

A집단:

이 A집단은 본 연구의 직접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대학 재학중 학과목 결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학원에서 수강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즉, 학원수강생들 중 대학의 3학년 1학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집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비교(혹은 준거) 집단과 가급적 동질집단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최소한 대학 재학기간이 2년 정도 경과되어야 학업결손의 지각이 뚜렷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후반학년(3-4년)이 되면 자아정체성이나 미래전망감이 고착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종

학년을 피하고 3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선정하였다.

B집단:

이 집단은 대학재학생(3학년 1학기)으로 A집단과 비교하기 위한 준거집단이다. 대학의 교직과정에 등록한 학생으로서 학과성적도 평균 B학점을 유지하는 비교적 안정된 학생집단이다. 학업의 무결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C집단:

이 집단도 B집단과 마찬가지로 A집단과 비교하기 위한 준거집단이다. 다만 B집단과 다른점은 교직과정 수강생이 아닌 여러 학과에 소속한 3학년 재학생을 무작위로 표집한 집단으로서 여기에는 일부 학업성적의 결손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의 표집대상 학생들을 정리하면 다음표(Ⅲ-1)과 같다.

〈표Ⅲ-1〉 연 구 대 상 표 집

구분 / 집단	인 원 수	실제 응답자	비 고
A(연구집단)	160	(151)	전공교과목보충수강생 (대학3학년 재학생)
B(비교집단)	130	(127)	평균B학점 취득자(대학 3학년교직과정수강생)
C(비교집단)	130	(122)	여러학과의 일반학생들(대학 3학년재학생 무작위 표집)

2. 연구설계(자료수집)

첫째로 A집단은 보충학습을 위한 수강이 끝난 다음에 측정(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들은 수강이 끝나는 3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약 절반의 인원에게는 3학년 1학기초에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3학년 1학기 후반에 설문지가 배부되어 측정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둘째로 측정후 결과의 비교에 있어서, A집단과 B집단간의 비교에서는 적어도 A집단과 B집단간에 동일한 수준 (A=B)을 유지하거나, 또는 가급적 A집단이 B집단보다 높아야 (A집단)B집단)한다고 전제한다. 왜냐하면 B집단은 학업성적면에서 무결손 집단이기 때문에 결손집단인 A집단이 적어도 B집단과 동일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측정치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C집단은 그 구성원에 있어서 결손인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A집단과 C집단의 비교에 있어서는 적어도 A집단)C집단의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로 집단간의 비교를 위한 방법은 2(Qui-Square)검증, T검증, F검증 중 어느 것도 가능하겠으나 여기서는 T검증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측정도구

여기에 동원된 측정도구는 일곱가지 항목에 걸쳐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6단계의 응답지(應答肢)를 두어 그중 하나에 반응토록 하였다. 문항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2〉 설문지(측성도구)의 구성

문 항	응 답 지 (應答肢)
1. 장래의 반영	6
2. 장래 전망	6
3. 직업 전망	6
4. 집안형편 전망	6
5. 사회 전망	6
6. 장래 수용도	6
7. 현재의 자신에 대한 수용도	6

Ⅳ. 연구결과 및 해석

위의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집단(A, B, C)간에 각 문항(7개문항)별로 어떠한 (어느 정도)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과연 의의있는 차이로 볼 수 있는가?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곧 이 연구에서 내세운 가정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등등,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장에서 다룬 사항들이다.

각 문항의 순서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간단히 내려 보기로 한다.

1) 문항1: 현재의 학습경험이 장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이 물음에 대한 세 집단(A, B, C)의 반응 결과와 집단간의 차이는 다음표 (Ⅳ-1)와 같이 나타났다.

〈표Ⅳ-1〉 문항1에 대한 응답결과

문 항	A 집단	B 집단	C 집단	B-A	C-A	C-B
퍽도움	58(38)	20(16)	26(21)	(22)	(-17)	(5)
다소 도움	82(54)	78(61)	74(61)	(7)	(7)	(0)
그저그렇다	7(5)	20(16)	3(2)	(11)	(9)	(2)
별로도움않됨	1(1)	9(7)	2(2)	(6)	(1)	(5)
전혀도움않됨	·	·		·	(2)	(2)
무응답	3(2)	·	·	·	(2)	(2)
계	151(100)	127(100)	122(100)			

* 괄호( )안의 수치는 %

위 표(Ⅳ-1)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느정도 도움이 되느냐" (퍽 도움, 다소 도움)에 대한 응답이다. 여기에서 "퍽 도움이 된다"란에 답한 결과를 보

면 A집단과 B집단 사이에 22%, A집단과 C집단사이에 17%, B집단과 C집단사이에 있어서 5%의 차이를 각각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에서 A:B, A:C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 결과를 T점수화하여 유의도 검증을 해 보면 각 집단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표Ⅳ-1-1〉 A:B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1)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1.76	-3.96	276	.000
B집단	127	2.14			

〈표Ⅳ-1-2〉 A: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1)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2.01	-2.71	271	.007
C집단	122	2.93			

〈표Ⅳ-1-3〉 B: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1)

집 단	N	M	T	DF	P
B집단	127	2.14	1.20	247	.231
C집단	122	2.93			

위의 표(Ⅳ-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와 B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 P.=.000(A>B)를 나타내고 있고, 표(Ⅳ-1-2)에서도 P≤.007로서 여전히 A와 C사이에 유의한 차이(A>C)를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 표(Ⅳ-1-3)의 B와 C집단간에는 P≤.231로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A집단(연구집단)은 B와 C집단에 비하여 현재의 보충수업이 미래에 도

움을 줄 것이라는 강도높은 반응을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문항2: 장래를 전망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

다음표〈Ⅳ-2〉는 문항2에 대한 응답의 결과이다. A집단은 B와 C집단에 비하여 "밝다"라고 긍정적으로 장래전망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반면에 B와 C집단은 A집단보다 "다소 염려"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집단간의 유의도 검증의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표Ⅳ-2-1, Ⅳ-2-2, Ⅳ-2-3 참조)

〈표Ⅳ-2〉 문항2에 대한응답결과

응답지	A 집단	B 집단	C 집단	B-A	C-A	C-B
밝다	50(33)	18(14)	15(12)	(19)	(21)	(2)
보통	70(46)	50(39)	52(43)	(7)	(3)	(4)
모름	15(10)	16(13)	12(10)	(3)	(0)	(3)
다소염려	13(9)	40(31)	38(31)	(22)	(22)	(0)
암담	2(1)	3(2)	4(3)	(1)	(2)	(1)
무응답	1(1)	·	1(1)	·	(0)	(0)
계	151(100)	127(100)	122(100)			

〈표Ⅳ-2-1〉 A:B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2)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2.01	-5.30	276	.000
B집단	127	2.69			

〈표Ⅳ-2-2〉 A: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2)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2.01	-5.49	271	.000
C집단	122	2.73			

〈표Ⅳ-2-3〉 B: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2)

집 단	N	M	T	DF	P
B집단	127	2.69	-.30	247	.761
C집단	122	2.73			

각 집단간의 유의도 검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와 B집단간에 있어서 유의하게 (P≤.000), 또 A와 C집단간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P≤.000)각각 나타난 반면, B와 C집단의 차이는 무의미하게 (P).076) 나타나 있다. 즉 A집단은 B집단과 C집단보다 장래전망에서 우세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한데 대하여 B와 C집단간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업결손의 보충경험이 긍정적으로 미래전망감의 형성에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문항3 : 장래의 직업전망은 어떠한가?

직업전망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Ⅳ-3)와 같다. A와 B집단, A와 C집단, 그리고 B와 C집단 사이의 차이는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차이점은 5%정도에 불과하다. 유의도 검증의 결과에서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A집단과 B집단 사이에 있어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이고 (표Ⅳ-3-1) A와 C집단, B와 C집단은 모두 우리가 기대하는 유의수준 5%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A와 C집단에서 P≥.065, B와 C집단에서 P≥.246) (표Ⅳ-3-2, Ⅳ-3-3 참조)

〈표Ⅳ-3〉 문항3에 대한 반응 결과

응답자	A 집단	B 집단	C 집단	B-A	C-A	C-B
반드시성공	38(25)	26(20)	27(22)	(5)	(3)	(2)
노력하면성공	44(66)	38(61)	75(61)	(5)	(3)	(0)
모르겠다	9(6)	2(2)	7(6)	(4)	(0)	(6)
다소염려	3(2)	9(7)	9(7)	(5)	(5)	(0)
미전망	1(1)	12(9)	4(3)	(8)	(2)	(6)
무응답	1(1)	·	·	·	·	·
계	151(100)	127(100)	122(100)			

〈표Ⅳ-3-1〉 A:B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3)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1.89	-3.00	276	.003
B집단	127	2.24			

〈표Ⅳ-3-2〉 A: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3)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1.89	-1.86	271	.065
C집단	122	2.08			

〈표Ⅳ-3-3〉 B: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3)

집 단	N	M	T	DF	P
B집단	127	2.24	1.16	247	.246
C집단	122	2.08			

위의 결과(표Ⅳ-3-1, Ⅳ-3-2, Ⅳ-3-3)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A집단은 B집단보다 직업전망에 있어서 훨씬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C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반응으로 볼 수 없다. B와 C집단간의 차이도 모두 무의미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보충수업집단(A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직업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문항4: 앞으로의 집안형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집안형편 즉 가정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반응한 결과는 다음 표(Ⅳ-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와 B집단사이, B와 C집단사이에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유의도 검증의 결과는 모두 유의성(5%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표Ⅳ-4〉 문항4에 대한 반응 결과

응답자	A 집단	B 집단	C 집단	B-A	C-A	C-B
아주나아질것	54(36)	21(17)	42(34)	(19)	(2)	(17)
다소나아질것	76(50)	90(71)	57(47)	(21)	(3)	(24)
모르겠다	15(10)	11(9)	21(17)	(1)	(7)	(8)
다소나빠질것	4(3)	5(4)	1(1)	(1)	(2)	(3)
아주나빠질것	·	·	·	·	·	·
무응답	2(1)	·	1(1)	·	·	·
계	151(100)	127(100)	122(100)			

〈표Ⅳ-4-1〉 A:B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4)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1.85	-1.86	276	.064
B집단	127	2.02			

〈표Ⅳ-4-2〉 A: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4)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1.85	-.28	271	.776
C집단	122	1.88			

〈표Ⅳ4-3〉 B: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4)

집 단	N	M	T	DF	P
B집단	127	2.02	1.55	247	.123
C집단	122	1.88			

A와 B집단 사이에 있어서는 P=0.64, (표Ⅳ-4-1), A와 C집단에서는 P=.776(표Ⅳ-4-2), B와 C집단에 있어서는 P=.123(표Ⅳ-4-3)으로 각각 나타내 줌으로서 유의수준(5%)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보충의 경험이 장래 집안형편의 전망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문항5: 미래의 이세상(사회)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아래의 표(Ⅳ-5)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사회)에 대한 전망한 반응의 결과이다. 집단간의 반응의 차이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세상을 각 집단마다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응답자중 75%~84%가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편중된 반응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표Ⅳ-5〉 문항5에 대한 반응 결과

	A 집단	B 집단	C 집단	B-A	C-A	C-B
아주나아질것	30(20)	18(14)	23(19)	(6)	(1)	(5)
다소나아질것	96(64)	88(69)	68(56)	(5)	(8)	(13)
모르겠다	15(10)	15(12)	23(9)	(2)	(9)	(7)
다소나빠질것	9(6)	6(5)	6(5)	(1)	(1)	(0)
아주나빠질것	1(1)	·	1(1)	·	·	·
무응답	·	·	1(1)	·	·	·
계	151(100)	127(100)	122(100)			

〈표Ⅳ-5-1〉 A:B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5)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2.02	-.68	276	.489
B집단	127	2.08			

〈표Ⅳ-5-2〉 A: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5)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2.02	-1.37	271	.171
C집단	122	2.16			

〈표Ⅳ-5-3〉 B: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5)

집 단	N	M	T	DF	P
B집단	127	2.08	-.78	247	.435
C집단	122	2.16			

위의 각 표(Ⅳ-5-1, Ⅳ-5-2, Ⅳ-5-3)에서 유의도 검증의 결과를 보면 A와 B집

단 사이에 있어서 P=.499, A와 C집단에 있어서 P=.171, B와 C집단사이에 있어서 P=.435로서 모두 유의한(5%)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의미있는 차이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업성취도(혹은 학업결손의 보완)와 사회적 전망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6) 문항6: "나의 장래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에 어떻게 느끼는가?

이 문항은 응답자 자신의 장래를 좌우할만한 주요인이 주로 자기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보느냐 혹은 자기 이외의 다른데 있다고 보느냐 하는 귀인성(歸因性)에 대한 질문이다.

〈표Ⅳ-6〉 문항6에 대한 반응 결과

	A 집단	B 집단	C 집단	B-A	C-A	C-B
전적으로수용	7(5)	11(9)	3(2)	(4)	(3)	(7)
수용하는편	16(11)	20(16)	11(9)	(5)	(2)	(7)
모르겠다	5(3)	3(2)	10(8)	(1)	(5)	(6)
그렇지않다	83(55)	75(59)	70(57)	(4)	(2)	(2)
전혀그렇지않다	37(25)	18(14)	26(21)	(11)	(4)	(7)
무응답	3(2)	·	2(2)	(2)	(0)	·
계	151(100)	127(100)	122(100)			

이 표(Ⅳ-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귀속시킨 응답은 11%~25%수준으로 매우 낮은 반면에 "그렇지 않다"(타에게 귀속)라고 답을 한 것이 무려 73%~80%로 높게 나타나 있다.

〈표Ⅳ-6-1〉 A:B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6)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3.90	2.56	276	.011
B집단	127	3.55			

〈표Ⅳ-6-2〉 A: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6)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3.90	-.07	271	.942
C집단	122	3.91			

〈표Ⅳ-6-3〉 B: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6)

집 단	N	M	T	DF	P
B집단	127	3.55	-2.61	247	.010
C집단	122	3.91			

집단간의 차이 검증을 보면 A집단과 B집단간에는 P≤.011, B집단과 C집단간에 P≤.010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나 (표Ⅳ-6-1, 표Ⅳ-6-3) 학업성적의 보충이 귀인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

7) 문항7: "지금의 나의 처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내탓") 어떻게 느끼는가?

이 문항은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처지에 대한 귀인성을 어디에 돌리고 있는냐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즉 자신에게 돌리고 있느냐(내탓) 혹은 남에게 돌리고 있는냐(남의 탓)이다.

이 표(Ⅳ-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집단이 현재의 처지를 "내탓"으로 보는 경향(77%~98%)이 두드러지게 나타있다. 매우 건전한 생각이다. 앞의 장래에 대한 귀인성 질문에 반응

한 결과 (표Ⅳ-6)와 매우 대조적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문Ⅳ-7〉 문항7에 대한 반응결과

	A 집단	B 집단	C 집단	B-A	C-A	C-B
그렇다	113(75)	59(46)	82(67)	(29)	(8)	(21)
그렇게생각	35(23)	39(31)	28(23)	(8)	(0)	(8)
모르겠다	1(1)	5(4)	5(4)	(3)	(3)	(0)
그렇지않다	2(1)	23(18)	5(4)	(17)	(3)	(14)
전혀그렇지않다	·	·	2(2)	·	(2)	(2)
무응답	·	1(1)	·	·	·	·
계	151(100)	127(100)	122(100)			

〈표Ⅳ-7-1〉 A:B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7)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1.28	-6.41	276	.000
B집단	127	1.97			

〈표Ⅳ-7-2〉 A: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7)

집 단	N	M	T	DF	P
A집단	151	1.28	-1.89	271	.060
C집단	122	1.43			

〈표Ⅳ-7-3〉 B:C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문항7)

집 단	N	M	T	DF	P
B집단	127	1.97	4.26	247	.010
C집단	122	1.43			

집단간의 차이 검증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 (P<5%수준)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만 A와 C집단 사이에 있어서 약간의 미달되는 수치(P≥.060)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결과는 A집단(보충집단)보다 B와 C집단이 현재의 처지에 대하여 타(他)에 대한 귀인성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 합

위에 제시한 반응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 표(Ⅳ-8)와 같다. 7개문항중 6번째 문항인 장래에 대한 귀인성에 한하여 긍정<부정(A집단: 16 : 80, B집단: 25 : 73, C집단: 11 : 78)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긍정>부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둘째 문항에 장래전망에서 B집단과 C집단에서 긍정 쪽에 약간 우세한(B집단: 53 : 33, C집단: 55 : 34)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의 문항들은 모두 압도적으로 (77%~98%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Ⅳ-8〉 각 문항별 각 집단의 긍정 및 부정적 반응의 종합 비교

문 항	A		B		C	
	긍 정	부 정	긍 정	부 정	긍 정	부 정
1. 학업성적의 기여도	92	1	77	7	82	4
2. 장래전망	79	10	53	33	55	34
3. 장래직업전망	91	3	81	16	83	10
4. 가사(가정)전망	86	3	88	4	81	1
5. 사회전망	94	7	83	5	75	6
6. 장래에대한 귀인성	16	80	25	73	11	78
7.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귀인성	98	1	77	18	90	6

앞에서 제시해 온 차이검증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 표(Ⅳ-9)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A집단과 B집단간의 비교에 있어서 문항4(가정전망)와 문항5(사회전망)를 제외한 전문항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 A집단과 C집단간의 비교에서는 문항1(학업성적에의 기여도), 문항

2(장래전망)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일뿐 나머지 전문항(3~7문항)에 있어서 무의미한 차이를 보일뿐이다. B와 C집단은 원래 예상했던대로 6 ,7문항(귀인성)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전문항은 무의미하게(P>.050)나타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간단히 종합해보면 각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A와 B집단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A와 C, B와 C 집단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Ⅳ-9〉 각문항별 집단간 유의도 종합 비교

집단 / 문항	A:B	A:C	B:C
1. 학업성적의 기여도	**유(.000)**	**유(.007)**	무(.231)
2. 장래희망	**유(.000)**	**유(.000)**	무(.761)
3. 장래직업전망	**유(.003)**	무(.065)	무(.246)
4. 가사(가정)전망	무(.064)	무(.776)	무(.123)
5. 사회전망	무(.499)	무(.171)	무(.435)
6. 장래에대한 귀인성	**유(.011)**	무(.942)	**유(.010)**
7. 자신의 처지에대한 귀인성	**유(.000)**	무(.060)	유(.000)

(괄호내 수치는 유의도 P)

5. 맺음말

이 연구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결손의 보완을 위한 보충학습경험이 그들의 미래전망감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보충학습진단(A집단)과 무결손집단(B집단)과 부분학업결손(혹은 학업불만)인원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C집단) 사이에 있어서 차이검증을 시도하였다.

위의 4장에서 제시된 반응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업성적의 장래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연구집단(A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우세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차이검증도 유의하게 나타나 있는점(표Ⅳ-1-1)으로 미루어 보아 미래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둘째로, 장래전망에 있어서도 A집단(연구집단)이 B와 C집단 보다 우세하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유의도 검증에는 A와 B, A와 C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서 학업결손 보충이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장래직업 전망에 있어서 A와 B집단간의 반응의 차이검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볼 때 위(둘째항목)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넷째, 가사전망과 사회전망은 A, B, C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내주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학업성취도와는 전혀 무관함을 짐작케 한다. 다시말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고 받는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섯째로, 장래에 대한 귀속성 설문에 A, B, C 모든 집단이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강하게 돌리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장래는 자기자신만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자신의 처지(위치)는 전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위의 다섯째 항의 장래에 대한 귀인성 설문의 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다. 현재의 대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내 탓"으로 귀속시키려는 의향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다. 집단간의 차이검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재학 중 학업성취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그들의 장래의 미래관에 크게 영향주는 요인 등의 하나이며 미래관 뿐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처지(위치)를 결정지워주는 주요 요인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金貞淑, 1972, 誘引變因 · 學業成就 · 自我槪念(碩士學位論文), 高大大學院.

_____, 1977, 學校成績의 累積的經驗이 情意的 行動特性形成에 미치는 縱斷的 硏究, 서울:대한 교련.

朴鐵熙, 1993, 學院學習經驗이 大學生의 進路 및 未來展望感에 미치는 영향 (碩士學位論文), 崇實大學校大學院.

徐鳳延, 1975, 自我正體感形成에 관한 心理學的一硏究(博士學位論文).

崔志雲, 1984, 大學의 社會心理的 環境變因과 大學生의 情意的特性變因과의 關係에 관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大學院.

黃禎奎, 1982, 大學環境의 社會心理的特徵硏究, 高大 敎育問題硏究所.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 Y: Mcgraw-Hill Book Co., (김호권 역, 1977, 인간의 제특성과 학교학습, 서울: 한국능력개발사).

Bloom B.S., 1964, Stability and Changes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Carrol J. B., 1963, 64, "A Model of School Learning", Teachers College Record, 723-733.

Erickson, 1959, E. 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No. 1.

_____, 1968, "Identity. Psychological",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Mcmillan Company and Free Press, Vol. 7, pp. 61-65.

Glaser, R., 1962, Psycology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In R. Glaser(ed.), Training Research and Education, N.Y. : John Wiley and Sons.

Oh Ki Hyoung, 1980, The Suitable Learning Task Approach to Teaching and Learning.
The World Council of Comparatives Education Societies.

Abstract

The Impact of Extra-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on Their Future Perspectives

Choe, Jee W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extra-learning for learning deficiency students on their future perspectives.

Smpling of this study was designed into three groups: extra learning group (Group A; 151), normal group (Group B; 127), and mixed group (Group C; 122).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s completed by students at Soong Sil University. Four hundred students complected questionnaires from May to August of 199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for a significant level and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A and the GB were found in the perspectives of academy, general future and vocational future.

No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he three groups with regard to the perspectives of family and social future. The finding indicated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two perspectives and the respondents' extra-learning experiences.

Regarding the perspectives of the respondents' future position, all the three groups showed a tendency to attribute from the outside of

themselves. In addi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a question of attribution about the respondents' present position, they showed a strong tendency to attribute to themselves. Significant differences also found among the three groups.

Finally,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the experiences of extra- learning at college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students for the formation of possitive future perspectives.